

최악의 변수를 만들지 말자!



본지 김한웅 부장

지금 남쪽지방에선 매화꽃이 만개하고 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벚꽃 축제도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을 뒤로하고 봄을 향한 빠른 질주는 우리 업계에 있어 단순히 봄이 왔다는 차원을 떠나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HPAI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한다.

2007~2008년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몇 차례 저병원성 AI의 발생보고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탈하게 지내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료비 등 육계 생산비의 인상여파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HPAI의 비발생은 가슴을 쓸어내리기에 충분하다.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육계가격은 생산비 수준을 겨우 맴도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과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업계 내부에서조차 획일적인 생산비를 산출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육계가격이 생산비 수준 또는 생산비 이하임을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닭고기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업자를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이 최고 1만7~8천원대를 호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HPAI가 발생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차단 방역을 통해 HPAI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물론 업계차원에서 '가금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HPAI 발생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언론, 학계 등을 대상으로 AI의 안전성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선택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지금은 우리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HPAI가 발생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신의 이익과 성과를 위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HPAI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상당부분 바꿔 놓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HPAI는 우리 업계에 절대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HPAI가 발생했다는 보도만 접하게 돼도 당장 10% 이상의 닭고기 소비감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0%의 소비감소는 결국 육계가격 폭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있다.

특히 생산부문에 있어 육계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4~5월이면 풀릴 것으로 기대됐던 사료가격 인하도 환율폭등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다시 사료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여기에 환절기 질병 등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육계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최악의 변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 최악의 변수는 HPAI의 발생이다.

최근까지도 저병원성 AI의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 업계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HPAI의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